

배포 2026. 6. 24.(수) 11:00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##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「2026 국토교통기술대전」 서 '탄소중립의 내일' 선보인다

- 6월 24일(수)부터 3일간 코엑스서 'LH가 그리는 탄소중립의 내일' 특별관 운영
- 자연과 기술이 어우러진 체험형 전시... 미래 주거·도시의 청사진 한눈에
- ▲청정에너지 ▲제로에너지 주택 ▲모듈러 주택 ▲탄소중립 등 5개 체험존 구성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24일(수)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「2026 국토교통기술대전」에서 'LH가 그리는 탄소중립의 내일'을 주제로 특별관을 선보인다고 밝혔다.
- 특별관은 '자연을 담은 도시, 미래를 여는 주택'을 주제로, LH 토지주택연구원(이하 LHRI)에서 추진한 '제로에너지 공동주택' 국책 R&D 등 주요 연구 성과를 활용해 청정에너지 기반 미래 주거·도시 기술의 청사진을 제시한다.
- '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의 여정'이란 흐름으로, 조정 요소를 동선에 녹여 관람객이 자연과 기술의 결합을 한 걸음씩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.
- 특별관은 ▲청정에너지 ▲제로에너지 주택(가상체험·실물체험) ▲모듈러 주택 ▲탄소중립 체험 등 5개 존(Zone)으로 구성됐는데, 디지털 체험과 실물 전시관, 조정·휴게공간·미디어월이 어우러진 종합 체험형 공간으로 마련됐다.
- '청정에너지와 함께하는 LH' 존에서는 신도시·산업단지·공동주택을 잇는 '에너지 고속도로' 구상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를 미디어월로 소개한다.

- '내가 만드는 ZERO+ HOME' 존에서는 태양광·BIPV·히트펌프·연료전지·지열 등 에너지 저감기술로 관람객이 직접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설계해 보는 가상체험을 제공한다.
- 'ZERO+ HOME 전시관'에서는 국가 R&D 'ZEB3 제로에너지 공동주택'에 적용되는 히트펌프·연료전지·태양광 등 에너지 저감기술의 실제 제품과 작동 방식을 만나볼 수 있다.
- '레고처럼 조립하는 집' 존에서는 모듈러·PC(Precast Concrete) 등 공장 제작형 주택을 가상으로 조립·건축해 보며 미래형 주택을 이해할 수 있다.
- '발끝으로 배우는 탄소저감' 존에서는 일상 속 탄소저감 행동을 참여형 게임으로 풀어내,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탄소중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했다.
- 아울러 단지 내를 오가며 주문한 물건을 문 앞까지 배송해 주는 '배송 로봇', 단지 안을 순찰하는 로봇개 형태의 자율주행 '순찰 로봇' 등의 시현도 이어진다.

□ 한편, 6월 25일(목)에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LHRI 주관 「2026 LHRI 동행 콘서트」가 열려 '탄소를 흡수하는 도시로의 전환', '2050 제로에너지 주택의 미래' 등 관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.

□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"이번 전시는 제로에너지 주택 기술 등 LHRI의 국책 R&D 성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내, 미래 주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"라며 "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주거환경의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|      |       |     |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연구관리처 | 책임자 | 팀 장   | 김길태 | (044-902-9136) |
|      |       | 담당자 | 수석연구원 | 양홍석 | (042-866-8441) |



\* 서울 COEX에서 열리는 「2026 국토교통기술대전」에 마련된 'LH가 그리는 탄소중립의 내일' 특별관' 전경



\* 서울 COEX에서 열리는 「2026 국토교통기술대전」에 마련된 'LH가 그리는 탄소중립의 내일' 특별관' 전경